

“준공검사 ‘뒷돈 거래’ 관행... 터질 게 터졌다”

■ 전기업계·전기 노조원들이 말하는 한전비리 행태

공사 쪼개기로 수의계약 등 부정 계약 의혹

‘협력사 유착’ 고질적인 문제 철저수사 촉구

한국전력 전 나주시시장 등 한전 직원들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한전 계약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일부 지사에서만 발생한 비리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기업계에서는 2년마다 지역 사업소별로 2~4개의 협력사를 선정, 일정금액 이하의 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한전의 ‘배전공사 협력회사 제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전 지역 사업소별로 특정 소수업체와 지속적으로 공사 업무가 진행되는 점에서 ‘한전 나주시지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등의 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전기업계 관계자·노조원들이 전하는 행태=검찰 수사 소식을 접한 전기관련 업체와 전기 노조 측은 비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한전 협력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전의 협력사로 선정되면 1건당 8000만 원 이하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고 도급받을 수 있는 총 도급금액만 16억원에서 많게는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 탈락 업체들에게 웃돈을 주고 사업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해 즉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협력업체 선정에 목을 매는 이유다.

최근 검찰 수사로 한전이 나주시 등 광주·전남 지역사업소(시·군 지사)의 배

전공사를 책임질 협력업체 106개를 선정하면서 특정 전기업체 대표 3명이 19개의 회사 명의로 협력업체 지위를 독식하면서 불거졌다는 게 이들 판단이다.

또 한전과 수주 업체간 이워지는 ▲배전공사 준공 검사 ▲쪼개거나 부풀리기 공사 등을 통해 뒷돈 거래나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기업계의 지적이다.

배전공사 준공검사의 경우 한전과 계약을 맺은 수주 업체가 공사를 마친 뒤 한전에서 준공검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준공 검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는 대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주장이다. 부풀리기의 경우 1000만원짜리 공사를 3000만원짜리로 부풀려 공사를 발주한 뒤 이 공사 대금 일부를 업체가 한전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에서 활용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8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쪼개서 공사를 발주한 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종종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와 전기노조 측은 전했다. 전남지역 A전기업체 대표는 “한전과 협력업체 유착 비리가 최

근 치러진 협력업체 입찰로 불거졌다”면서 “협력사로서의 공사를 많이 받아야하고 준공검사가 잘 통과돼 기성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전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말했다.

◇수사 칼끝 어디까지=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3일 뒷돈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로 전한전 나주시시장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나주시사 재직 시절 전기 등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나주·영광지역 소재 협력업체 대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측은 이와관련, “지역 전기업체와 전기 노조원을 주장만 하며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지역 전기업체와 전기 노조원을 주장만 하며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오늘의 날씨

남부서해안 '비소식'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우량은 5mm 미만.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림	3/8	보성	가름호리고비	-1/8
목포	흐림	2/6	순천	가름호리고비	2/9
여수	가름호리고비	4/7	영광	흐림	0/6
나주	흐림	2/7	진도	가름호리고비	3/8
완도	가름호리고비	4/8	전주	구름많음	0/8
구례	흐림	-1/8	군산	구름많음	-1/7
강진	가름호리고비	2/8	남원	구름많음	-1/7
해남	가름호리고비	2/8	홍산도	가름호리고비	4/6
장성	흐림	1/7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안	북동-동 0.5	북동-동 0.5
남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북동-동 0.5	북동-동 0.5~1.0
서부	남동-남 0.5~1.5	북동-동 1.0~1.5
전남	남동-남 0.5~1.5	북동-동 1.0~1.5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60

◇물때

목포	밀물 07:50 20:02	썰물 00:39 13:04
여수	01:39 13:58	07:42 20:13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	☁	☁	☀	☀	☀	☀
0/9	-1/6	-1/4	-2/5	-1/6	0/6	0/6

“무허가 건물 양성화해달라” 구청서 염산 난동

광주서부경찰 5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3일 구청에서 염산병을 들고 난동을 벌인 고모(5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염산 400ml가 든 병을 들고 자신의 민원을 들어달라고 소리치며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씨는 전남에도 같은 장소에서 염산병을 들고 구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건축과에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 측이 거절하자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씨는 구청 측의 요구로 자신의 불법 증축 건축물을 철거했으나 이후 불법증축물 양성화 제도가 시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시 증축한 뒤, 수차례 구청을 찾아가 건물을 양성화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구청 측은 전했다. 경찰은 구청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염산을 뿌리며 저항하는 고씨를 테이저건을 쏘 붙잡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13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수영장에서 어르신들이 물장구를 치며 웰빙아쿠아로빅 수업을 하고 있다. 물 속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아쿠아로빅은 저항이 적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누리꾼들이 경찰보다 범인 빨리 잡을까?

개업 한달만에 도난 피해 게임기 가게 주인 네티즌 수사대에 현상수배...경찰 바짝 긴장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비디오게임기 가게 절도사건의 범인은 과연 누구의 손에 먼저 잡힐까.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도난피해를 당한 한 비디오게임기 가게 주인이 범인을 잡아달라며 네티즌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며 네티즌 수사대와 경찰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인을 잡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 A비디오게임기 가게 주인 김모(32)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에 ‘가게 도둑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0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30분 사이에 복귀 용봉동 자신이 운영하는 비디오게임기 용봉점에 도둑이 들어 비디오게임기(15대)·게임CD(200장)·노트북·카메라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다는 것이다.

또 파손된 출입문 등 범인이 침입한 경로와 도난물품 등 관련사건 9장을 게재한 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문도 남겼다.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네티즌 수사대에겐 소정의 금액을 사례하겠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엔 범인의 행적과 성향 유추 등 1200건의 댓글이 달린 상태.

해당 게시글은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SNS까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김씨가 지난 11일 북부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를 받고도 네티즌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범인을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는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로, 게임과 관련된 물품이 도난당한 만큼 범인이 도난물품을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게임CD 또는 비디오 게임기 등을 장물로 내놓을 경우 네티즌들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가 인터넷에 현상수배를 내걸면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범인이 네티즌 수사대에 붙잡힐 경우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 주인이 가게에서 화분을 도난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검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네티즌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 20시간 만에 범인을 붙잡기도 했다.

김씨는 “도난 추정시간대에 가게 앞을 지나던 행인으로부터 제보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범인이 곧 잡힐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원 시험 부정행위 적발

학교법인 前이사 항소 기각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커닝)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선대 법인 전 이사 이모(6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대학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해 무고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인 벌금 500만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씨 주장도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조선대에서 ‘고전번역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시험’을 보던 중 미리 준비한 한문사전과 커닝 페이퍼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보청기 www.maxo.co.kr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의료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 · 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 · 가능 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애비오'** **맥소 '스코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 · 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청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장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33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마산·창원본점 055)222-305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